

예수 승천 대축일  
(홍보의 날)

기도서 305 편(B해)

제1독서 : 사 도 1, 1-11  
제2독서 : 에 페 1, 17-23  
복 음 : 마 르 16, 15-20

#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야.

(마르 16, 15)

▶ 강론



## 홍보의 날

김 준 호 신부

인간은 자기 나이에 알맞는 말과 행동이 있다. 이에 따라 된 인간, 덜 된 인간으로 그 차이를 지적받기도 한다. 또한 자기 나이에 알맞는 삶의 몫이 있어 그 몫을 잘 해낼 때와 잘못 해낼 때에 따라 자기 삶의 보람이나 가치에 대한 느낌도 차이가 난다.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복음화다. 따라서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전 생애에 걸쳐 하느님께로부터 부여된 중요한 삶의 몫이 있다면 복음, 하느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일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크리스찬은 각자의 여건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알맞는 방법으로 주어진 몫을 해내야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대 사회는 홍보의 시대다. 우리 교회에서도 홍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여러가지 홍보 수단을 교회 사명인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 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교회는 시대와 환경이 요구되는대로 각종 홍보 수단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여러 홍보 매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각종 기계 수단을 이용하고, 신문 잡지 외에 여러가지 도서를 알맞게 펴냄으로써 모든 크리스찬이 복음을 보다 더 용이하게 전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복된 소리는 외쳐질 수도 있고, 쓰여질 수도 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알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할 것인가?

한 권의 책이라도 손에 들자. 한 권의 잡지라도 읽자.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주어진 생의 몫을 다 하지 못하는 못난 신자가 되지 말자.

소리로 들려주고, 글로 읽히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음화의 방법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해야 할 하느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새삼 힘을 주스리는 오늘, 홍보의 날이 되자. (홍보국장)



## 머리를 숙입니다.

—광주의거 추모미사에

5년전 5월의 光州이야기를 아는가! 5년이 지난 이 5월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광주사태 희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도 「5·17 광주의거 추모미사」를 봉헌했다. 5년전에 귀가 아프게 들었던 「폭도」라는 말이 연상되어, 광주사태의 실상을 모르는 시민들로서는 참으로 의아할 뿐이다. 폭도와 의거, 뭐가 뭘지 모르겠다. 그렇다던 당시에 떠돌던, 이른바 유비통신이 전해주던 말들이 사실이였다는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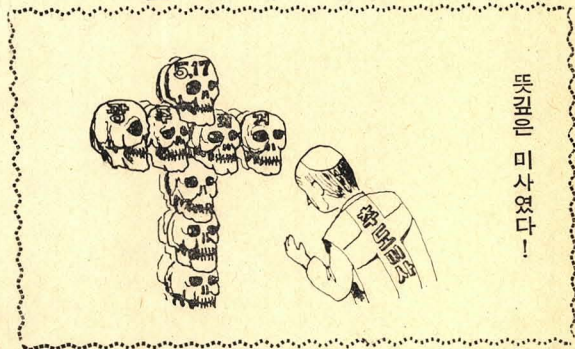
지난 4월 8일 관훈클럽 연설의 초청연사였던 민정당의 노태우 대표위원은 기초연설 후에 광주사태와 관련된 답변에서 “3김씨 등 정치인들이 뜻을 합쳐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켜나갔다면 5·17 등 일련의 상황전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아무리 진실하게 말한다 해도 당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변명한다는 인식을 받을까 두렵기도 하다. 좀더 차분하게 기다리면 진정한 역사를 기록할 계기가 오리라 믿는다”고도 말한다.

정말로 지금은 그 사실을 밝힐 때가 아니란 말인가?

「대학가에 광주사태 진상 규명대회. 해마다 이맘때면 들려오는 아픈 목소리」. (5월 11일자 東亞日報 無影塔) — 이 5월의 한국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째서 이토록 좋은 계절이 그리도 뒤숭숭해야 하는가! 「5·17 대비 격려 대상자」·「운동권 학생 등 연행」·「5·17 앞두고 시위 예방 연례행사」—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꼭 이래야 하는가!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마르코 4장 22절). 광주사태도 그 실상이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나서 적절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어떻든지 우선은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어야 한다.

## 숲 정 이 산책



뜻깊은 미사였다!

성서교실 ⑩

너희는 나의 빛이다. 요한 15:14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이라고 하는 것보다 「벗」이라고 하는 것이 더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중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15절)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의 벗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그분의 벗이다.

①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비밀의 참여자라는 것이다. 하느님의 비밀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일러진다(시 25:14). 「야훼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내가 장차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창세 18:17).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친구였다(야고 2:23). 하느님 아들의 비밀은 당신을 친밀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진다. 당신 현존(現存)의 조명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생명, 평화, 영광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다.

②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고통의 동참자라는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15:18,19). 그리스도가 고통을 받은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참다운 벗도 그래서 고통을 받아야만 하고 또 받는 것이다.

③ 그것은 우리가 그분 위로의 동참자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위로도 많습니다」(고후 1:5). 고통의 동참자는 위로의 유산자가 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또 베푸실 것이다.



□제19차 홍보주일에

\*\*\* 문제 있다! \*\*\*

선교수단으로써의 홍보매체

교회는 여러 가지 사도적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예수승천 대축일을 홍보의 날로 정하여 신자들에게 매스컴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깨우쳐 주고 기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셨다(마태 28,19-20. 마르 16,15-20). 교회는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려 할 사명을 받았다. 만민을 대상으로 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사도적은 현대의 발전된 홍보수단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홍보매체 중에서도 교회 내 일반신자를 위한 정기 간행물인 가톨릭 신문, 경향잡지, 생활성서가 보다 활발한 선교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신자들은 관심을 갖지 않거나 구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미가 없어서일까? 원하는 만큼의 도움을 증당시켜 주자 않아서일까? 이유야 어쨌든 교회의 움직임과 소식에 무감각한 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각 간행물 측에서도 이 시대의 흐름과 문제를 좀더 예리하게 파악하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 그리스도적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알찬 편집에 노력해야 할 점도 있다.

비참한 간행물 구독현황

우리교구의 간행물 취급은 84년부터 홍보국에서 하고 있다. 간행물 현황을 보면 교구내 신자수가 83,000명이 넘는데도 가톨릭 신문 396부, 경향잡지206부, 생활성서 430부의 구독에 그치고 있다. 간행물을 구독하는 신자들은 신자 전체수의 1%도 못미치는 비참한 형편이다.

2년 후인 1987년이면 교구설립 50주년을 맞게 된다. 그동안 이웃에게 전한 선교의 방법을 뿌리깊게 더듬어 보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선교에 임하기 위해서 각 신자들이 먼저 자신의 신앙심을 심화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알고, 교회생활의 지식과 상식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각 사도적 단체, 신실운동 단체 단위로 구독운동이 전개되어 각 신자 가정에 교회 간행물이 적어도 1부 이상씩 구독해야겠다.

간행물 구독신청은 교구청 홍보국이나 우편매체 400010-31-9026907을 이용하실 수 있다.

특수자연시 컴퓨터로 마음에 원하시는 안경으로 눈을 밝고 보호해 드립니다. 보안당 썬타.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주. 윤 베드로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특수 파티복 |  
○고급 칠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벤지 |  
서울주단 ☎ ③0453 ③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T.R로 산 교육화 현대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김 테레사(금순) ☎ ④ 9206·③ 5289

안경의 생명은 좋은 렌즈, 정확한 안경 진절과 성실로 교우 여러 분에게 열가봉사 제일안경원 전주 전동성당 사거리(신호등 앞) 2-0102·72-3225 김스테파노 김마리안나

# 世界一周觀光詩

(全北 MRA 第七號 附錄)

全州市 校洞 1街 15-7 ☎ 6-6005

社團法人 MRA 全北代表 趙海衡

(住所 全北 全州市 中老松洞 1街 264-4 ☎ 2-7636



## 1. 日本

칠백년 가마쿠라 흥망성쇠 어제런가  
물어도 은행나무 그간사연 대답없고  
무상타 그 옛날영화 찾을길이 없어라

## 2. 比律賓

야자수 향기로운 마니라의 푸른거리  
어디나 약동하는 리자루의 애국충성  
시원타 로하스브르바 질주하는멋이어

## 3. 泰國

태국의 산천초목 더없이 아름답다  
그러나 나라둘레 불안하기 짝이없어  
이나라 걱정거리도 우리나라 닮았구나

## 4. 亞羅比亞

넓다못해 처량한 아라비아 사막땅에  
하늘은 안스러워 석유광을 주셨는가  
제타는 황야개발의 다시없는 중심지

## 5. 瑞 西

알프스 산정올라 스위스의 풍경보니  
한폭 그림같은 자연미의 극치로세  
내지금 세계제일의 선경앞에 섰어라

## 6. 伊 太 利

판테온 코로세움 천고고적 남았어도  
천하를 주름잡던 로마제국 간데없고  
한가닥 뜬구름만이 그머리를 스치는가

## 7. 바 티 칸

웅장한 대리석집 백년걸려 지었다단다  
절묘한 조각중에 천년신비 잠겨있다  
바티칸 베드로성당 만년영광 누리소서

## 8. 獨 逸

라인강 맑은물은 말이없이 흘러가도  
독일의 부흥발전 그지없이 눈부시다  
기적아 겐만겨레의 강철같은 투지여

## 9. 白 耳 義

벨기에 사회복지 빈틈없이 이룩되어  
거리의 얼굴들은 구김살이 전혀없다  
진실로 세상낙원의 이기미를 배워가리

## 10. 和 蘭

호국에 몸바치신 만고충신 이준열사  
화란의 파란속에 눈뭇감고 묻히셨네  
겨레여 그높은기개 통일로나 달래오리

## 11. 英 國

위대한 학자군인 신부수녀 역대임금  
여기에 누워있어 대영제국 수호하네  
알맞춰 웨스터민스타 대사원의존엄아

## 12. 佛 蘭 西

천하를 호령하던 만고패왕 루이십사세  
기로쟁 단두대에 말없이간 루이십육세  
파리며 베르사이유 한자리꿈부절없네

## 13. 美 國

하늘이 주신자유 어느누가 빼을손가  
미국의 자유물결 나라힘을 길렀지  
거룩타 자유여신상 온누리를 밝히네

## 14. 加 奈 陀

천지를 진동하며 쏟아져 내리는물  
천하의 장관이요 대자연의 신비로다  
워터폴 나이아가라 이름또한 장하다

## 15. 墨 西 哥

산비탈 판자집은 마치 들이지었는가  
고달픈 얼굴들은 희망없는 하루살이  
멕시코 티화나마을 소슬바람 황혼길

## 16. 自 由 中 國

일월담 맑은물에 보름달이 영롱한데  
징청호 청년센타 푸른꿈이 아롱지다  
장하다 자유중국에 삼민주의 만만세



### □ 멀리 독일에서도...

금년 사순절 동안도 각 본당에서 교구 사제 양성을 위한 성소후원 성금이 모두어져 교구에 보내지고 있는데... 멀리 독일에서도 귀한 성금을 보내왔다.

이때주 신부님이 담당하고 있는 독일 마인즈지역(마인즈, 프랑크푸르트, 루트빅사펜, 기타)의 교포 신자들이 사순절 동안, 패지 저금통을 키운 것.

현금 945,000원을 루트빅사펜지구 회장 조승래(니콜라오)씨와 그 부인 정하옥(모니카)씨가 고국 방문차 귀국해서 교구장님께 직접 전달—우리 마음을 호뜻하게 했다.

교포들의 신앙을 위해 사제를 파견해 준 배려에 감사하면서, 사제 양성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펼친 운동에 교포 신자 모두가 적극 동참, 적은 성금이라도 기쁘게 써달라는 고마운 뜻에 크게 감사하며 아직도 미약한 사제 양성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부끄럼 속에 더욱 아쉬워지기만 하다.

### □ 초대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 교구 사회복지 사목부가 새 집을 마련하고 개원미사를 거행한다.

「전주 가톨릭 사회복지회관」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복지회 사무실과 무지개 가족(장애자의 집) '농민 사무부, 노동 사무부, 농민회' 등이 함께 모여 살게 된 것.

교구 사회복지회 위원장이신 지정환 신부님은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사업의 발전과 활동을 다짐하는 이 개원미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면서 용기와 격려를 바라고 있다.

집전 : 박 정일(미카엘) 주교

때 : 1985년 5월 23일(목) 오후 3시

곳 : 전주 가톨릭 사회복지회(전북은행 남부지점 4층, 구 성모병원)

### □ 술정이 명상

### 회 의(懷疑)

어떤이는 회의에 빠져 방황하는 것은 인생을 즐키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회의에 빠져보지 않고 정신적인 방황을 해보지 않고는 자기 자신마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세계를 회의하고 마침내 찾아낸 대명제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것을 자기 철학의 제일 원리로 삼았던 것이다. 그렇게도 철저한 회의 속에서 발견해 낸 자기의 존재— 그것은 「데카르트」 자신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진리의 체계적인 기초로써 현대 과학의 출발점도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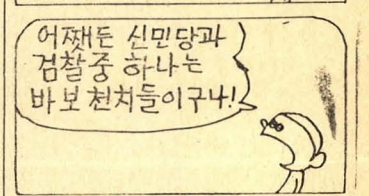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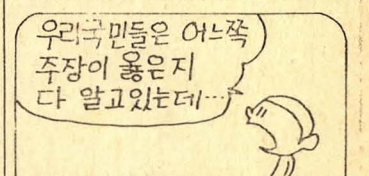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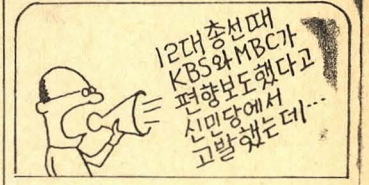
데카르트가 회의속에서 자기의 실존을 찾아낸 것처럼 진정으로 회의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알고, 인생을 알고 세계를 알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물론 회의는 결코 아름답거나 달콤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것이지만 그로써 우리가 갈길을 더 현명하게 선택하게 되고 우리의 의식을 더욱 참되게 해주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해준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비가 오고난 후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회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심지(心志)가 더욱 굳어지는 것이다.

“신부님 나는 지금 깊은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실망에 빠져 이야기를 꺼냈던 그 젊은이에게 무엇보다도 삶의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았다.

### 요십이(615) 김병오



### 신자[가정]마다

가톨릭신문 1부씩!



내외 교회소식과 더불어 신앙의 아름다움이 전면에 넘치고 있습니다. 읽고, 알고, 행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가톨릭신문 1부는

한사람의 전교사!

월 구독료—1,500원

1년 선불—15,000원

구독신청 : 교구청 홍보국

☎ 0041~3

우편대체 : 400010-31-9026907

코오롱  
MANSTAR



맨스타  
전주특약점

### 코오롱 모드

자신감으로 나선 거리 맨스타

돋보이는 남성의 품위 맨스타

주 : 길 아드리야노

전주시 중앙동 3가 26-1 ☎ 8415

(전북은행 중부지점 앞)

### 개업 1주년 기념 사은 대특매

기간 : 4. 28 ~ 5.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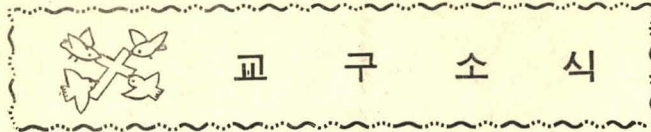
- 사은품 증정
- ① 파카 크리스탈잔 세트
  - ② 나이키 신발·나이키 등산복용 맥·나이키 스포츠웨어
  - ③ 병장고용 삼단 맥

### 삼성전자 중부 대리점

중앙시장 육교 옆 (4-4314, 74-5161)

김(빈첸시오)·윤(엘리사벳)

(4) 숲 정 이



- ☆ 전주교구 레지오 창설 30주년 경축대회 개최 : 일시-27일(월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장소-전주 실내체육관, 참석대상-각 본당 레지오마리아에 단원 및 교우 여러분
- 1. **축! 견진** : 전동 천주교회 25일 오후 7시, 중앙 천주교회-26일 공식미사 중, 주례-박정일 주교님
- 2. **5월중 표미시움 회의** : 일시-5월 19일 오후 2시, 장소-전동 천주교회  
참석대상-각 꾸리아 직속 브레시디움 간부 전원
- 3. **남자 성소자 모임(고·대·일반)** : 5월 19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 4. **사제 어머니님 모임** : 5월 20일(월요일), 장소-이리 황등 해바라기 농장, 소순형 신부님 방문  
집합장소-5월 20일 오후 1시30분 시청앞 버스터미널 집합(가타리나 자매님 협조에 감사합니다)
- 5. **5월중 은혜의 밤 및 철야기도회** : 25일 오후 9시~26일 오전 6시, 장소-효자동 천주교회, 대상-모든 교우들
- 6. **1지구 중·고등학생 체육대회** : 일시-5월 27일, 장소-해성고등학교
- 7. **빈센시오회 1일 찾집** : 26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장소-가톨릭센터 휴게실
- 8. **제 8기 예비자반 모집** : 개강-5월 31일(금) 오후 7시30분, 가톨릭센터, 접수처-교구청 교육국(☎ 0041~3~)
- 9. **대학생 주일(탈출 강습)** : 일시-5월 26일 오후 2시, 장소-센터 교육관  
**빠스제** : 6월 2일 오전 9시30분~오후 8시, 프로그램-성경시험(모세오경, 교회상식), 건전가요제(개인·중창)  
자격-교구내 전 대학생 신자, 예비신자. 각 성당 또는 각 단위대에 소속한 사람  
접수-5월 26일까지의 토요일·일요일 오후 2시~6시 대학생 연합회 사무실, 센터 교육국
- ※ **성바오로서원 2주일간 문답습니다** : 성바오로 서원 내부수리 관계로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문을 닫게 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5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 **축! 명명 성 디디에(23일)** : 지정환 신부님 축하합니다

하나회 작품전시회 : 전시품-매듭, 자수, 등나무공예, 편물, 서예, 시화전  
일시-5월 19일,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장소 : 전주 가톨릭 사회복지회 회의실(전북은행 남부지점 4층)  
많이 오셔서 사랑과 용기를 주십시오.

전주시 중노송동 2가 361-3  
주임신부 김 용 태  
보좌신부 김 의 철  
사도회장 이 흥 재

**노 송 동**  
**천 주 교 회**

사 제 관 ☎ 0 9 6 9  
수 녀 원 ☎ 7 0 3 2  
사 무 실 ☎ 7 0 3 2

- ◎ 미사시간 안내  
월-오전 5시30분  
화-오전 10시30분·오후 7시30분  
수-오전 5시30분·오후 7시30분  
목-오후 7시30분  
금-오전 5시30분·오후 7시(짧은미사)  
토-오전 5시30분·오후 4시(특전미사)  
일-오전 5시30분·10시30분·오후 3시·6시
- ◎ 예비자 교리안내  
일반-매주<일> 공식미사 후  
직장인-매주<화> 저녁 8시  
부녀반-매주<수> 오전 10시
- 1. **예비자 2단계 예식** : 오늘 오전 9시  
해당자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식을 받으신분들은 26일에 영세를 받게 됩니다
- 2. **축! 영세식** : 26일 공식미사 중에
- 3. **축! 성모의 밤 행사** : 25일 저녁 8시  
모두 참여합니다  
개인별 단체에서는 헌시와 헌화(화분)를 봉헌합니다
- 4. **교무금 납부의 날** : 오늘은 교무금납부의 주일입니다  
교무금은 항상 분납하여 본당 운영에 협조합니다
- 5. **공소 회장단 회의** : 21일 오후 3시, 신교리 공소에서
- 6. **공소 순회미사** : 왕정공소-18일 저녁 8시  
신원공소-25일 저녁 8시
- 7. **금주의 전례담당** : 제3조, 차주는 4조가 담당입니다  
차질없이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84,360원 **교무금** : 413,000원  
**신축헌금** : 146,000원